

임채빈, '그랑프리 우승자 무덤' 징크스 깰까

'전년도 그랑프리 1인자' 우승 전무 52연승 질주...절정의 컨디션 자랑 경관권 첫 우승자 탄생 기대감 키워



임채빈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왕중왕전'이 24일~26일 광명스피돔에서 3년 만에 열린다. 올해 상반기 각종 급별 최강자를 가리는 경주다. 특히 이번 왕중왕전에서 팬들의 시선은 특선급에 쏠리고 있다. 현재 52연승을 기록 중인 임채빈(31·25기)이 첫 출전하는 왕중왕전도 휩쓸지 여부가 관심사다.

현재 특선급 절대강자인 임채빈의 왕중왕전 출전이 주목을 받는 것은 전년도 그랑프리 우승자는 한번도 우승을 하지 못한 독특한 징크스 때문이다. 예상지 경륜박사 박진수 팀장의 도움으로 왕중왕전의 독특한 징크스와 올해 대회 전망을 살펴봤다.

●왕중왕전 수도권·충청권 유독 강해

정종진(20기)은 2016년 왕중왕전 2연패에 성공하고 그 해 그랑프리까지 승리하면서 그랑프리 4연패 신화를 썼다. 그러나 그랑프리 우승 이후 출전한 왕중왕전에서는 3회 연속 승리를 못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정하늘(21기)에 밀려 각각 5, 3위에 그쳤다. 2019년에는 과감한 선행으로 승부수를 띄웠으나 황인혁(21기), 윤민우(20기)에게 연달아 역전을 허용하며 3위에 머물렀다.



2019년 경륜 왕중왕전 결승에서 우승자 황인혁 선수가 선두로 질주하고 있다. 경륜의 최강자 임채빈이 첫 왕중왕전 출전에서 전년도 그랑프리 승자가 한번도 우승하지 못하던 징크스를 깰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종진에 앞서 역대 그랑프리를 제패했던 선배들도 왕중왕전과는 인연이 없었다. 2010년 우승자 송경방(13기)은 다음 해 왕중왕전에서 예선 탈락했다. 2011, 2012년 우승자 이명현(16기)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거나 준결승 7위에 그쳤다. 2013년 우승자 박병하(13기)도 준결승에서 6위로 탈락했다.

그나마 2014년 우승자 이현규(16기)가 준우승을 차지하며 역대 그랑프리 우승자 중에 가장 나은 성적을 냈다. 하지만 2015년 우승자 박용범(18기)은 왕중왕전을 앞두고 낙차, 실격을 당하면서 불참했다.

또 하나의 징크스가 있다면 경관권의 약세다. 그랑프리는 2016년 정종진이 우승하기 전까지는 송경방(광주), 이명현(나주), 박병하(김해), 이현규(김해),

박용범(김해) 등 우승자가 광주나 김해 팀이었다. 하지만 유독 왕중왕전은 수도권, 충청권팀이 강세를 보였다. 2011년부터 8년 동안 최순영, 전영규, 김동관(2회 연속), 정종진(2회 연속), 정하늘(2회 연속) 5명이 왕중왕전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당시 기세가 막강하던 광주, 김해팀 선수들은 왕중왕전에서는 번번이 수도권, 충청권에 벽에 막혔다. 따라서 이번에 수성팀 소속인 임채빈이 우승을 하면 경관권 첫 왕중왕전 우승자인 셈이다.

●올해도 고배당 나올까

전년도 그랑프리 우승자들이 왕중왕전에서 유독 부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고배당이 자주 나왔다. 2015년 정종진-이현규-박용범(쌍승 56.9배), 2017년 정

하늘-성낙승-박용범(쌍승 127.9배), 2018년 정하늘-정재완-정종진(쌍승 146.4배, 삼쌍승 867.7배), 2019년 황인혁-윤민우-정종진(쌍승 85.7배, 삼쌍승 677.4배) 등 왕중왕전은 짝짝 스타탄생과 함께 고배당이 덩어리 따라왔던 것이다. 하지만 임채빈이 우승하면 이런 흐름도 깨어질 전망이다.

경륜박사 박진수 팀장은 "2인자 정종진을 비롯해 올 시즌 두각을 나타낸 정해민, 양승원, 인지환, 전영규, 공태민, 정재원, 황승호 등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여 임채빈의 최다연승 신기록 행진이 멈출 수 있다"며 "하지만 임채빈이 이번 고배만 넘으면 전무후무한 2022년 전승 우승과 100연승도 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내일부터 경주권 구매예약 가능 '스피드온' 새로운 서비스 도입



스피드온을 통해 경륜경정의 사전 구매예약을 할 수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23일부터 스피드온에서 경륜경정의 사전 구매예약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주별 확정출주표가 고지된 후 스피드온을 통해 해당일 경주권 구매를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요일은 목요일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오전 9시 30분까지 구매할 수 있고, 토요일은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당일(토, 일) 오전 9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스피드온 예치잔액이 없거나 구매예약 후 회원상태가 변경되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선수결장 등 경주정보가 변경되면 구매예약이 불가능하고 사전예약 건은 마감 후 자동 취소된다. 경주일 오전 9시 30분 이후에 경주정보가 변경되면 기존처럼 해당경주 종료 후 자동 취소처리 된다.

'경륜 왕중왕전' 팬 사인회 등 이벤트 풍성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광명스피돔에서 열리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경륜 왕중왕전'에 맞춰 26일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특선급 결승 진출선수 7명이 참여하는 팬 사인회를 2층 A출입구 근처에서 오후 1시부터 연다. 12경주 종료 후에는 여자육상 꿈나무들이 참여해 경주로를 달리는 이벤트가 실시된다. 15경주 종료 후 열리는 왕중왕전 시상식에서는 경륜선수 1기인 정행모와 공성열 선수가 선별급 시상자로 나선다.

경륜경정 건전문화 포스터 공모전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8월 5일까지 '경륜경정 건전문화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www.speedon.or.kr/poster)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주제는 '건전하게 즐기는 관람 스포츠 경륜경정', '건전구매 정착을 위한 구매 상한액 준수', '구매자 책임 이용으로 사형성·과몰입 예방'이다. 금상 300만 원을 비롯해 총 9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이번 잦은 장마철 경정...인코스 복병을 주목하라

빛속 스타트·휘감기 승부 어려워 습기에 민감한 보트 상태도 변수

6월 중순을 지나며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다. 전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 만큼 다가올 등급 조정에 대비해 선수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질 시기다. 여기에 경주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수가 다가온다. 그것은 바로 여름 장마다. 다소 늦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급 조정을 앞에 두고 있어 점수를 끌어올려야 하는 선수나 사고점을 관리해야 하는 선수, 플라잉을 조심해야 하는 선수들

모두 장마철 경기는 큰 변수다.

사실 많은 비가 내리지만 않는다면 경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난주 24회차 주요 경주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렸지만 양이 많지 않고 바람도 크게 불지 않아 경기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여름 장마는 순간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비로 시야에 방해를 받아 스타트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 승부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휘감기 승부 같은 전속 턴을 구사하기 힘들어 인코스가 더욱 유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올 시즌은 유독 플라잉 위반자가

많이 발생해 평균득점이 낮은 선수들이 많아 주선보류를 피하려는 경향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장마철 점수가 여윌지는 강자들은 안전 위주로 경주를 풀어가겠지만, 반대로 점수 획득이 급한 선수들의 경우 적극적인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면 상태가 좋지 않으면 경합 상황에서 역전이 쉽지 않아 하위급 선수라도 초반 주도권을 잡을 때 끝까지 착순을 유지하며 이번을 연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안쪽 코스에 기량은 조금 떨어져도 모터가 받쳐주는 복병급 선수가 있을 때 과감하게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재범 기자

sports2i 스포츠투아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프로야구 기록실 (20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개방	연속	타율	평균자책	홈런	실점
1	SSG	68	42	23	3	0.646	-	1패	0.253	3.58	0.733	316
2	키움	67	39	27	1	0.591	3.5	1패	0.243	3.37	0.471	285
3	LG	67	38	28	1	0.576	4.5	1승	0.262	3.63	0.472	324
4	KIA	65	34	30	1	0.531	7.5	2패	0.267	4.08	0.455	332
5	KT	67	32	33	2	0.492	10.0	1승	0.249	3.49	0.400	265
6	삼성	66	32	34	0	0.485	10.5	2승	0.260	3.69	0.419	282
7	두산	65	30	34	1	0.469	11.5	1패	0.254	4.00	0.387	301
8	롯데	65	29	34	2	0.460	12.0	1승	0.256	4.06	0.324	264
9	NC	66	26	38	2	0.406	15.5	2승	0.250	3.72	0.412	256
10	한화	66	22	43	1	0.338	20.0	8패	0.240	5.14	0.387	271

●평균자책점												
순위	선수	팀	경기	이닝	실점	자책	승	패	세	안타	출런	삼진
1	김광현	SSG	1.54	12	76.0	18	13	7	1	0	53	2
2	루현식	NC	1.81	14	94.2	26	19	5	4	0	71	4
3	폰트	SSG	1.99	14	95.0	22	21	8	4	0	60	6
4	류제호	삼성	2.30	14	90.0	27	23	6	3	0	90	3
5	수아레스	삼성	2.34	14	80.2	28	21	3	5	0	71	3
6	요키시	키움	2.43	14	89.0	27	24	7	4	0	73	5
7	켈리	LG	2.44	12	73.2	23	20	8	1	0	65	4
8	안우진	키움	2.44	13	81.0	27	22	7	4	0	62	1

메이저리그 (21일)												
●아메리칸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뉴욕Y	50	17	1	미네소타	38	30	1	휴스턴	41	25	
2	토론토	38	29	2	클리블랜드	34	28	2	LAA	33	37	
3	보스턴	37	31	3	시카고W	32	33	3	텍사스	31	35	
4	탬파베이	36	31	4	디트로이트	26	41	4	시애틀	29	39	
5	볼티모어	30	38	5	캔자스시티	24	42	5	오클랜드	23	45	
●내셔널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뉴욕M	45	24	1	밀워키	39	30	1	LAD	40	25	
2	애들렌트	39	29	2	St.루이스	38	31	2	샌디에고	42	27	
3	필라델피아	36	32	3	피츠버그	27	39	3	샌프란시스코	37	29	
4	마이애미	29	36	4	시카고C	25	42	4	애리조나	32	37	
5	워싱턴	24	46	5	신시네티	23	43	5	클로라도	30	37	

경기결과												
샌디에이고	4-1	애리조나	피츠버그	12-1	시카고C							
뉴욕M	6-0	마이애미	캔자스시티	6-2	LAA							
애들렌트	2-1	샌프란시스코	밀워키	2-0	St.루이스							
보스턴	5-2	디트로이트	시카고W	8-7	토론토							
뉴욕Y	4-2	탬파베이										

퓨처스리그 (21일)												
●경기결과												
KIA	7-8	고양	롯데	11-3	삼성							
SSG	6-19	한화	상무	4-7	두산							
NC	15-3	KT										

경기예고												
프로축구 (22일)												
●하나원큐 K리그1 2022 (17라운드)												
전북	(전주)	수원	서울	(서울)	울산							
인천	(인천)	강원	오후7시30분, JTBC G&S									
오후7시	skySports											

프로야구 (22일)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한화	(잠실)	LG	롯데	(광주)	KIA							
(-)	(-)	(-)	(-)	(-)	(-)							
오후6시30분, KBS N SPORTS			오후6시30분, SPOTV2									
NC	(수원)	KT	두산	(인천)	SSG							
(-)	(-)	(-)	(-)	(-)	(-)							
오후6시30분, SBS SPORTS			오후6시30분, SPOTV									

아마추어 경기 (22일)												
축구	●K리그2=경남-충남아산(19시·진주종합경기장) 서울E-안산(목동종합운동장) 부천-안양(부천종합운동장·이상 19시30분)											
육상	●전국선수권대회(9시·정선종합운동장)											
사격	●제4회 창원시장배 전국대회(9시·창원국제사격장)											
레슬링	●양정모올림픽제패기념 제47회 KBS대 대회(10시·평창국민체육센터)											
테니스	●제1차 한국실업연맹전(충주탄금대테니스장)											
볼링	●청주컵 프로대회(11시·오창반도프라이밍볼링경기장)											
세팍타크로	●회계직 대회(10시·경남 고성군 고성국민체육센터)											

※득점권 타율: 주자2루, 3루, 1·2루, 1·3루, 2·3루, 민투 시타율 OPS: 홈루우+장타율